

## (사)한국포장기술사회 김기태 신임회장 선임 회원간 친목 도모 및 포장산업 발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주력



김기태

(사)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

(사)한국포장기술사회는 3월 2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기태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포장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포장기술사회 회장직을 덜컥 맡고 보니 겁부터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고 여러 선배님들이 계신데 저에게 회장직을 맡기신 것은 포장기술사회의 활성화는 물론, 포장업계에 책임을 다하라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아 벌써부터 어깨가 무거워기도 합니다.”

김기태 신임회장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업계의 무한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신임 김기태 회장은 한국디자인포장센터를 거쳐 동양제과와 (주)미원의 포장개발 업무를 담당, 지난 1995년 포장기술사 자격을 획득, 한국포장건설팅 수석컨설턴트를 거쳐 지난 2000년도부터 팩피아 대표로 재직 중이다.

지식기반의 포장산업 분야에 있어 최고 엔지니어들의 모임인 (사)한국포장기술사회는 1995년 국내 최초의 포장기술사인 김영호 초대 회장을 필두로, 8명의 포장기술사가 친목과 국내 포장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2000년 사단법인화를 추진해 온 단체이다.

현재 75명의 회원이 활동, 포장건설팅을 비롯해 포장개발

및 연구,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포장기술사회는 국내 포장인력 저변 확대를 위하여 포장전문인력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포장신기술 개발에 동기부여를 위하여 한국 10대 우수포장 선정 제도를 도입,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외에도 KS 개정 작업을 비롯해 각종 용역을 추진했으며 국제적으로도 일본 JPI와 협력하여 교류전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에 패키징산업지원센터가 발족되면서 상당부분의 사업이 이관, 포장기술사회의 각종 사업이 많이 위축된 것이 현실이다.

김기태 회장은 “이제 우리 포장기술사회는 회원들간의 친목 및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포장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포장산업의 위상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한국포장기술사회의 최초 발족 당시의 기본 미덕이었던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첫 번째 과제로 여기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중단되었던 포장실무 교육과 포장기술사회지 발간을 부활, 추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재충전을 위하여 “포장현장 및 포장업계 견학회”를 새롭게 발족시킬 계획이다.

사업분야 역시 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례화 된 형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해 왔던 ISO TC 122 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국제 업무에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김기태 회장은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의 소구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포장 대표 기관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패키징종합지원센터 탄생 이후, 업계 종사자들이 기대하고는 있지만, 아직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포장기술사회는 많은 기대를 갖고 그동안 중점사업이었던 10대우수포장 선정제도를 과감하게 센터에 이양했지만, 아직 업계에 밀착하여 공감있게 추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보다 관련 업계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포장관련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김기태 회장은 “한국포장기술사회 역시 패키징종합지원센터가 발전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는 한편, 업계 발전을 위해 질책을 함에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장기술발전과 포장문화 진흥을 위한 포장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사)한국포장기술사회.

김 회장은 “포장기술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최고 권위자라고 인정되는 사람들만큼, 그에 걸맞는 위엄과 겸손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포장기술사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히는 김기태 신임회장을 필두로 포장기술사회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